



프라이부르크 권창훈(오른쪽)이 2일(한국시간) 열린 독일 분데스리가가 14라운드 호펜하임과 원정경기 도중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권창훈은 시즌 첫 선발로 나서 팀의 3-1 승리를 도왔다. 사진출처 | 프라이부르크 페이스북

〈프라이부르크〉 ‘첫 선발’ 권창훈…팀 4연승 기여

리그 8경기만에 오른쪽MF 출격 활발한 움직임
코로나 후유증 황희찬,2개월만에 엔트리 포함

권창훈(27·프라이부르크)이 올 시즌 처음으로 선발출전해 팀의 4연승에 힘을 보탰다.

프라이부르크는 3일 오전(한국시간)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진스하임의 프리제로 아레나에서 끝난 2020~2021시즌 분데스리가 14라운드 호펜하임과 원정경기에서 3-1로 이겼다. 최근 리그 4연승과 함께 6경기 무패행진(4승2무)을 이어간 프라이부르크는 승점 20(5승5무4패)으로 18팀 중 9위에 자리했다.

권창훈은 이번 시즌 처음 선발로 출전했다. 이전 경기까지 리그 7경기에 교체로만 나왔던 그는 이날 오른쪽 미드필더로 출격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한 채 3-1로 앞선 후반 21분 루카스 뢰러와 교체됐다. 전반 24분에는 옐로카드를 받았다.

경기 시작 7분 만에 터진 바티스트 상타마리아의 선제골로 앞서간 프라이부르크는 전반 34분 상대의 핸드볼 반칙으로 얻은 페널티킥을 빈첸초 그리포가 성공시켜 승기를 잡았다. 전반 42분에는 상대 수비수 카심 애덤스 누후의 자책골로 더 멀찌감치 달아났다. 프라이부르크는 후반 13분 이흘라스 베부에게 만화골을 내줬으나 더이상은 추격을 허락하지 않았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후유증으로 고생한 황희찬(25·라이프치히)은 이날 슈투트가르트와 분데스리가 14라운드 원정경기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끝내 벤치만 지켰다. 황희찬이 엔트리에 포함된 것은 지난해 11월 8일 프라이부르크와 7라운드 이후 약 2개월만이다. 이후 11월 중순 국가대표팀의 오스트리아 원정에서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아 한동안 그라운드에 설 수 없었다. 연말 휴식이 이후 새해 첫 경기인 이번 슈투트가르트전을 통해 모처럼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회복을 알렸다.

라이프치히는 슈투트가르트를 1-0으로 따돌리고 리그 8경기 무패(5승3무)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최현길 기자 choi hg2@donga.com

방송사 촬영감독 1일 코로나 확진→2·3일 4R 4경기 잠정 중단

새해 벽두부터 코로나 습격…멈춰버린 V리그

지난 26일 OK금융-KB손보전 촬영양팀 선수들 모두 음성 그나마 다행
역학조사 결과따라 리그 스톱·재개
선수들 밀접접촉자 땀 중단 불가피

2021년 첫날 V리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습격으로 갑자기 멈춰버렸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 3일에 예정됐던 4라운드 4경기를 잠정 연기한다”고 1일 오후 10시 39분 긴급 공지했다. 전격적인 일정중단의 이유는 중계방송 관계자의 코로나19 확진판정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벌어진 남자부 OK금융그룹-KB손해보험전 때 선수단과 가까운 곳에 있던 모 방송사 촬영감독이 1일 확진판정을 받아 KOVO는 서둘러 이 같이 결정했다. 그는 타임아웃 때 두 팀 벤치의 모습을 영상에 담았다. 마스크는 썼어도 두 팀 선수들은 물론 부심, 대기심, 기록심판, 경기 및 심판위원은 물론 오디오맨 등의 촬영스태프와 오랜 시간 가까이 있었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이들 중 어느 선까지를 밀접접촉자로 분류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밀접접촉자는 2주간 자가격리를 거쳐야 한다. 만약 선수들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 시즌 중단 또는 해당 팀의 경기일정 조정은 불가피하다.

KOVO는 이 사실을 각 구단에 알리고 선제적 대응에 들어갔다. 사무국 임직원과 전문위원, 심판, 기록원 등 관계



중계방송사 관계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V리그가 멈춰 섰다. 확진자가 방문했던 지난달 26일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맞대결한 OK금융그룹과 KB손해보험 선수단 및 프런트는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KOVO는 모든 상황을 확인한 뒤 리그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사진제공 | KOVO

자 전원의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남녀 13개 구단의 모든 임직원과 선수들, 코칭스태프와 더불어 대행사 등 관계자 전원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뒤 결과를 KOVO에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잠정 연기된 경기는 2일 현대캐피탈-KB손해보험(천안), 도로공사-IBK기업은행(김천), 3일 우리카드-한국전력(창원), 흥국생명-GS칼텍스(인천)전이다.

이 가운데 흥국생명-GS칼텍스전은 지상파 방송에서 3일 낮 12시25분부터 생중계할 예정이었다. 이번 시즌 배구팬들이 가장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던 인기가드였기에 아쉬움이 크다.

질병관리청은 2일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확진자는 지난달 26일 경기 후로 경기를 방문하지 않았다고 한다. KOVO는 2020~2021시즌 개막에 앞서 ‘코로나19 대응 통합매뉴얼’을 만들어서 실행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가 벌어지는 날 경기장은 3시간 단위로 방역작업이 진행돼왔다.

다행히 KB손해보험과 OK금융그룹은 3일 현재 선수단과 프런트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일단 한시름은 달았다. 이제 남은 것은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 결과다. KOVO는 모든 상황을 확인한 뒤 경기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종찬 기자 marco@donga.com

레슬링인들 요구 목살하고 선거인 비공개 추첨…레슬링협회, 이게 최선인가?

취재수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을 겸직 중인 이기흥 현 회장과 ‘반 이기흥’의 기치를 내건 후보들의 경쟁으로 체육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대한체육회장 선거전도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레슬링협회 역시 지난 4년간 협회를 이끈 이정욱 회장으로 부터 바통을 물려받은 제36대 회장 선거(11일)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런데 분위기가 격앙돼 있다. 회장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선거인을 가리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아서다.

이 회장을 향한 레슬링계 전반의 시선은 곱지 않다. 규모가 작은 협회의 수장에게 가장 요구되는 역할이 재정적 기여인데, 이 회장은 이 부분에서 민심을 잃었다. 체육회가 공시한 2019년도 회원종목단체 경영공시에 따르면 이 회장의 지원은 2000만 원이었다.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자 원성이 일었다. 협회 집행부가 국회의원 출신의 인사를 회장 후보로 내세운다는 소문이 다. 이 회장은 재선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 회장이 협회 재정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나 집행부가 누구를 미느나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과정은 다르다. 일련의 흐름은 반드시 쏠

아야 하고, 필요하다면 상급단체나 법적 기관의 조사도 따라야 할 형편이다.

협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지난달 3일 구성했고, 선거일 공고는 28일 오후 6시 무렵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처음 게재됐다. 선거일 공고 이전에 회장 선거와 관련한 공지는 22일 ‘회장 후보자 결격사유 안내’가 전부였다.

그런데 선거인 추첨이 공고 다음날 오후 2시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비공개로 이뤄졌다.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속전속결로 이뤄진 것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 이에 앞서 많은 레슬링인들은 협회에 선거인 추첨 참관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협회는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

고, 결과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참관 요청 공문을 보냈던 일부 시도레슬링협회에선 부랴부랴 일부 인원을 협회로 보냈지만 헛걸음이었다.

추첨 결과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많은 레슬링인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특정세력을 지지한 이들이 대거 선거인으로 뽑혔다”며 분개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을 100% 받아들이긴 순 없더라도, 투명하지 못했던 투표인단 선정만으로도 이미 레슬링협회의 공정선거 의지와 중립적 업무 추진 노력은 훼손된 것이나 진배없다.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인 ‘공정’, ‘정의’와는 거리가 먼 듯해 뒷맛이 씁쓸할 따름이다.

남창현 기자 yoshike3@donga.com

sports2i

스포츠투아이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경기 결과

남자프로농구 <3일>

●2020-2021 현대모비스 KBL 경기결과

인삼공사 70 38 20-16 18-22 21-13 11-15 32 66 LG (10승17패)

SK 95 41 22-28 19-22 34-21 20-18 54 89 DB (7승20패)

프로배구 <3일>

●도드람 2020-2021 V-리그 남자부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득점 실점 연속

1 KB손해보험 19 13 6 38 1720 1641 3승

2 대한항공 19 13 6 37 1846 1741 2패

3 OK금융그룹 19 13 6 35 1823 1773 1승

4 우리카드 19 10 9 30 1649 1651 1패

5 한국전력 19 9 10 28 1763 1762 2승

6 삼성화재 19 3 16 16 1647 1769 4패

7 현대캐피탈 18 5 13 14 1508 1619 1승

●부문별 중간순위

총 득점 세트당 블로킹

순위 선수 팀 득점 순위 선수 팀 블로킹

① 케이트 한국배호 682 ① 박상하 삼성화재 0.74

② 라셀 한국전력 491 ② 신영석 한국전력 0.71

③ 알렉스 우리카드 464 ③ 김홍정 KB손해보험 0.71

④ 댈라페 OK금융그룹 444 ④ 장상현 OK금융그룹 0.70

⑤ 다우디 현대캐피탈 434 ⑤ 하현웅 우리카드 0.60

도드람 2020-2021 V-리그 여자부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점	득점	실점	연속
1	흥국생명	15	12	3	35	1389	1266	1패
2	GS칼텍스	16	10	6	28	1530	1442	2승
3	IBK기업은행	16	8	8	24	1356	1417	1패
4	인삼공사	16	6	10	20	1343	1392	2패
5	현대건설	16	6	10	17	1322	1405	2승
6	도로공사	15	5	10	17	1310	1328	3패

●부문별 중간순위

총 득점				세트당 블로킹			
순위	선수	팀	득점	순위	선수	팀	블로킹
①	러츠	GS칼텍스	506	①	한승인	인삼공사	0.71
②	다우프	인삼공사	494	②	한수지	GS칼텍스	0.67
③	라자레바	IBK기업은행	446	③	정대영	도로공사	0.64
④	김연경	흥국생명	386	④	김세영	흥국생명	0.56
⑤	켈시	도로공사	367	⑤	러츠	GS칼텍스	0.55

NBA

<3일>

●팀순위 동부 콘퍼런스

순위	대서양지구	승	패	순위	중부지구	승	패	남동지구	승	패	
1	필라델피아	5	1	1	인디애나	4	2	1	올랜도	4	2
2	브루클린	3	3	2	클리블랜드	4	2	2	애틀랜타	4	2
3	뉴욕	3	3	3	밀워키	3	3	3	마이애미	2	3
4	보스턴	3	3	4	시카고	2	4	4	살럿	2	4
5	토론토	1	4	5	디트로이트	1	4	5	워싱턴	1	5

서부 콘퍼런스

순위	북서지구	승	패	순위	태평양지구	승	패	순위	남서지구	승	패
1	유타	3	2	1	피닉스	5	1	1	뉴올리언스	4	2
2	포틀랜드	3	2	2	LAC	4	2	2	휴스턴	2	2
3	미네소타	2	3	3	LAL	4	2	3	샌안토니오	2	3
4	오클라호마	2	3	4	새크라멘토	3	3	4	달라스	2	3
5	덴버	1	4	5	골든스테이트	2	3	5	멤피스	2	3

●경기결과									
클리블랜드	96-91	애틀랜타	뉴올리언스	120-116	토론토				
뉴욕	106-102	인디애나	오클라호마	108-99	올랜도				
휴스턴	102-94	새크라멘토	필라델피아	127-112	살럿				
해외축구					〈3일〉				
●프리미어리그						득점			
팀	경기수	승점	승	패	무	선수	팀	득점	
1 리버풀	16	33	9	1	6	① 실라	리버풀	13	
2 맨체스터Utd.	16	33	10	3	3	② 손흥민	토트넘	12	
3 토트넘	16	29	8	3	5	③ 버디	레스터시티	11	
4 레스터시티	16	29	9	5	2	④ 칼버트-로윈	애버턴	11	
5 애버턴	16	29	9	5	2	⑤ 페르난데스	맨체스터Utd.	11	
6 첼시	16	26	7	4	5	⑥ 벵포드	리즈	10	
7 애스턴빌라	15	26	8	5	2	⑦ 케인	토트넘	10	
8 맨체스터시티	14	26	7	2	5	⑧ 월슨	뉴캐슬	8	
9 사우스햄튼	16	26	7	4	5	⑨ 자하	크리스탈팰리스	8	
10 웨스트햄	17	26	7	5	5	⑩ 라차레트	아스널	7	
11 아스널	17	23	7	8	2	⑪ 레쉬포드	맨체스터Utd.	7	
12 리즈	17	23	7	8	2	⑫ 마테	리버풀	6	
13 울버햄튼	17	22	6	7	4	⑬ 모페	브라이튼	6	
14 크리스탈팰리스	17	22	6	7	4	⑭ 아브라함	첼시	6	
15 뉴캐슬	15	19	5	6	4	⑮ 왓킨스	애스턴빌라	6	
16 번리	15	16	4	7	4	⑯ 임스	사우스햄튼	6	
17 브라이튼	17	14	2	7	8	⑰ 그릴리쉬	애스턴빌라	5	
18 풀럼	15	11	2	8	5	⑱ 바네스	레스터시티	5	
19 웨스트브롬위치	17	8	1	11	5	⑲ 수책	웨스트햄	5	
20 셰필드Utd.	17	2	0	15	2	⑳ 엘 가지	애스턴빌라	5	
●프리미어리그 경기결과									
브라이튼	3 - 3	울버햄튼	크리스탈팰리스	2 - 0	셰필드Utd.				
토트넘	3 - 0	리즈	아스널	4 - 0	웨스트브롬위치				

프리메라리가 경기결과

베티스
1 ~ 1
세비야

바야돌리드
1 ~ 0
헤타페

레알마드리드
2 ~ 0
셀타비고

비아레알
2 ~ 1
레반테

경기 예고

여자·남자프로농구

<4일>

●2020-2021 KB국민은행 Liiv M WKBL

삼성생명
<용인실내>

하나원큐

오후7시, KBSN스포츠

●2020-2021 현대모비스 KBL

전자랜드
<인천상산실내>

현대모비스

오후7시, SPOTV2

아마추어 경기예고

<4일>

월드볼
●2020-2021 SK핸드볼 코리아리그(상천시민)

●남자부=SK호코스-인천도시공사(오후4시30분), 충남도청-하남시청(오후6시10분), 부산-상무(오후7시50분)


오늘의 토토

<4일>

경기토도 W매치 대상경기 및 게임일정

경기
경기일시

홈팀
vs
원정팀

경기장소

1
01.04.(월) 19:00

삼성생명
vs
하나원큐

용인실내체육관